

고흥아트센터서 천경자 화백 추모 10주기 리마스터전 개최

10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작품 및 유품 100여점 구성, 'RE:Chun Kyung-Ja 환상여행' 전시 개막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고흥아트센터에서 고흥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 고(故) 천경자 화백 추모 10주기 리마스터전 <RE:Chun Kyung-Ja 환상여행>을 개최하며, 10월 2일 오후 2시 고흥아트센터 1층에서 전시 개막식을 연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 윤의 광주시립미술관장 등 각계 주요 인사와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장을 비롯한 미술계·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 교수가 지난해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 총괄 감독으로 고흥군과 인연을 맺으면서, 화백의 유품 57건(74점)이 고흥군에 영구 임대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천경자 화백이 생전에 작성한 친필엽서와 편지,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천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전시는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되며, 고흥아트센터 1층에서는 40여 점의 채색화를 감상할 수 있고, 2층에서는 화백의 유품(65점)과 이번 리마스터전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미디어아트 작품(5점)을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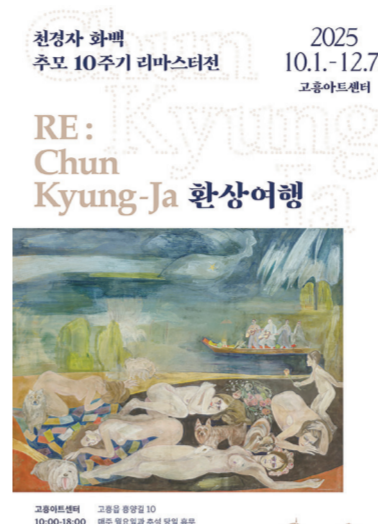
이번에 선보이는 채색화는 ▲생태 ▲내 슬픈 전설의 22 페이지 ▲아! 무정 ▲환상여행 ▲이탈리아 기행 ▲그랜드캐니언 ▲히피 ▲고갱 박물관 등 지금까지 10년간 고흥에서 전시되지 못했던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저작권 승인을 받아 레플리카(복본)와 유품을 토대로 제작됐다.

본 전시는 천경자 화백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큰 위로가 되는 동시에, 레플리카(복본)와 리마스터전을 통해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천경자 화백은 한국 현대미술사의 큰 별로, 천 화백의 작품에서 묻어나는 독창적인 색채와 강렬한 감성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분이 천경자 화백의 예술세계를 함께 느끼고, 깊은 감동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천경자 화백 추모 10주기 전시는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간직한 그리움과 아쉬움에 대한 응답이자, 다시 만나는 세계"라고 전시의 의의를 전했다.

전시는 10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이다.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고흥/박도일 기자

공재 윤두서 '세마도' 진본 10월 12일까지 전시

증가 축, 작품보존·안전한 전시환경 최우선 고려해 결정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에서 전시중인 공재 윤두서의 '세마도'가 오는 10월 12일까지 공개된다고 밝혔다.

'세마도'는 1704년 작으로 비단위에 수묵으로 그려진 가로 75.5cm×세로 46cm의 크기의 족자 형태, 말이 물가에서 세정되는 장면이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는 붓질로 그려낸 작품이다. 조선 후기 수묵화의 세밀성과 자연주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특히 말의 근육과 털의 정교한 표현, 여백과 농묵의 대비를 통해 화면 전체에 긴장감과 호흡이 공존한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으로 당시 실학적 사실주의 화풍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번 전시 일정 조정은 당초 10월 31일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해남 윤씨 증가 축에서 작품의 보존과 안전한 전시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10월 12일 이후에는 원본을 사진 촬영해 그대로



재현한 영인본을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작품은 해남 고산윤선도박물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오는 10월 12일 마지막 공개일까지 최적의 환경에서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해남관(고산윤선도박물관, 땅끝순례문학관), 진도관(소전미술관, 남도전통미술관), 목포관(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수목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 등 20개국 83명의 국내외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오철수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제22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개최 기간 2일 차인 오는 10월 16일 '아시아 문화의 날'로 선포하고, 금남로 일대를 아시아 각국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대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광주 동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기획한 '아시아 문화의 날'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물리적 거리를 초월해 문화와 사람이 만나는 특별한 여행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동구는 그동안 '아시아 문화의 날'을 위

"10월 16일 금남로로 아시아 여행 떠나자"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둘째 날 '아시아 문화의 날' 주제 베트남·인도·러시아·일본·몽골 등 음식·공연·체험 한 곳에

해 지난 반년간 공들여 준비해왔다. 아시아 각국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부터 정통 요리 전문가와 공연팀 초청까지 전 과정에서 "진짜"를 고집하며 현지에 가지 않고도 그 나라의 문화와 맛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음식은 현지인이 직접 조리하고, 주요 재료 또한 본국에서 들여와 아시아 본연의 풍미를 그대로 선보일

예정이다. 동남아시아의 활기 넘치는 야(夜)시장을 금남로2가에 재현한 '아시아 컬처 스트리트'는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펼쳐지며, 베트남 반세오, 인도 탄두리치킨, 러시아 사슬리, 일본 타코야키 등 아시아의 각국 음식을 만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 지역 대학들이 직접 참여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삶의 추억이 담긴 '진짜 아시아의 맛'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미식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볼거리도 관람객들을 눈길을 사로잡는다. 주무대에서는 오후 4~6시 'K-부티 헤어쇼'와 'K-부티 한복쇼'가 펼쳐져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몽골의 전통 음악, 중국의 소림무술, 일본의 요사코이 소란부시 등 각국의 독특한 전통 공연이 '아시아 컬처 쇼'에서 펼쳐져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김명수 기자

'달려라 하니' 40년 만에 영화로 부활... 추석 연휴 극장 개봉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완성된 '달려라 하니'가 추석 연휴기간 관객을 만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기획창작 스튜디오 제작지원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나쁜게 집에 -달려라 하니'가 다음달 7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22일 밝혔다. 작품은 '달려라 하니' 탄생 40주년을 맞아 오리지널 극장판으로 새롭게 제작됐다.

달리기 하나로 전국을 제패한 육상스타 '나에리'와 달리기 천재 '하니'의 고교 시절 경쟁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이번 작품에는 '하니'와 오랜 숙적 '나에리'가 다시 등장하며 '주나비' 새롭게 추가된 작품의 긴장감을 높였다. 또 악역으로 그려진 나에리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몰입감을 높였다.

이번 작품은 작업공간과 홍보를 지원하는 '기획창작스튜디오 레밸업 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완성됐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경주 원장은 "달려라 하니가 40년만에 새로운 모습



으로 관객을 만난다"며 "어린시절 울고 웃게 했던 만화에 현대적인 감성이 더해져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다"고 밝혔다. /전혜정 기자

강진영화관, 추석 맞이 '영화 보는 날' 운영

강진군이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강진영화관 영화 보는 날'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고향을 찾는 가족·친지들과 함께 영화로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됐으며, 행사 기간 동안 강진군민은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명절 분위기를 살려 가족 단위 관람객이 편안하게 영화관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기작을 상영하며, 군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 영화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가까이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화 보는 날'은 강진군민들에게 매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대표 문화 행사로, 이번 추석 연휴에도 지역민들의 즐거운 만남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국민 내로남 말고는 보다는 농어촌

농어촌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농지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